

#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

2015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제안합니다.

- 발송일자 : 2015년 5월 27일 목요일
- 수 신 : 제 청년·학생단체 및 정당
- 발 신 : 청년유니온
- 담 당 : 청년유니온 조직국장 송효원(010-3349-0990,yunion1030@naver.com)
- 제 목 : 2015 최저임금 공동사업 제안의 건

## 1 제안 취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가 다시 출발합니다.

2016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언제나처럼 늦어도 7월 초에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N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고작 얼마네'라며 지나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청년과 학생들의 생애 첫 임금이고, 여성과 고령자의 임금이고, 시간제·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1800만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그 규모는 450만 명에 이릅니다. 그뿐 아니라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준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의 임금이기도 합니다.

###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스스로의 노동조합을 가져보지 못한 청년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청년들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3년부터 '청년들의 최저임금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3개의 단체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의 요구안을 발표하였고,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최저임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그것의 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에서 5,580원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72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당사자위원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을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 추천했고, 지난 4월 30일 공식적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생겨난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청년은 10분 남짓한 진술만이 허용

된 참고인이 아니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위원으로서 교섭의 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제 회의장 안팎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청년문제의 해결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부터!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세대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현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임금의 기준이 높아짐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이 향상되어 내수소비가 늘고 전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월급봉투가 한국사회의 희망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공동과제로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구호의 싸움은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투쟁입니다. 중반전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아직 세 번이나 남았습니다. 올해의 싸움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긴 호흡의 싸움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 3년차, 3년의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 2 주요사업(가) 제안

###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 □ 취지

-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6월 4일)에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밝히는 자리
- 향후 3년의 최저임금인상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2015년 6월 청년학생들의 공동실천계획을 밝히는 자리

□ 일 시 : 2015년 6월 3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 ※ 순서

-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
- 청년, 학생 단체 대표자 발언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발언(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1)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 기간: ~6월 24일까지(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때 전달예정)
- 방식: 온라인 서명운동, 오프라인 캠페인등

### 2) 최저임금인상 공동 캠페인

#### ○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

- 일시 및 장소: 12시 15분~12시 45분
- 1차:5월 29일 신촌스타광장, 2차: 6월 5일 상암미디어 시티
- 3차: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4차: 6월19일 종로 보신각
- 형식: 버스킹 공연 및 캠페인
- 주최: 최저임금연대

○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

일시: 6월 13일 토요일

장소: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프로그램: 최저임금 서명운동, 최저임금 댄스, 최저임금 피켓팅등

○ ‘최저임금인상! 100인 동시다발 전국 일인시위’

일시: 6월 23일 (화) 출근시간, 점심, 혹은 저녁시간중 자유롭게

방식: 온라인 인증샷, 보도자료 배포

3) 최저임금인상 페스티벌 &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 대회

○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

-취지 및 상

: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요구 대한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결집

: 6월 최저임금 인상운동의 청년학생들의 공동실천을 결속

-일시 및 장소: 6월 24일 (수)오후 7시~9시, 신촌 스타광장(가)

프로그램(가)

버스킹, 영상상연, 집단 퍼포먼스등이 벌어지는 난장

-준비흐름

: 단체별 간담회 및 강연회

: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활동 및 단체 참가제안

○ 6월 26일- 27일 최저임금 1만원 대회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그래들의 발랄한 반란

- 일시 및 장소: 6월 26일(금), 광화문 광장이나 청계광장을 추진

16시 ~ 18시 : 장그래 박람회

18시 ~ 20시 : 장그래 콘서트(장그래 공모전 시상식과 병행)

20시 ~ : 장그래, 마지막 미션

- 최저임금 1만원 전국 노동자대회

일시 및 장소: 6월 27일(토) 낮, 00시

### 3 이후 주요일정 및 사업 흐름

#### 가. 첫 실무자 회의 일정

1) 일시 및 장소 : 6월 3일 (수)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근처(장소 미정)

\* 기자회견 후 회의장소로 이동합니다.

2) 참석대상자 : 각 단체 최저임금 담당자

#### 나. 5월 - 6월 주요 사업 일정표 (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최임위 전원회의	최저임금인상 런치문화제		
8	9	10	11	12	13	14
			최임위 전원회의	최저임금인상 런치문화제	최저임금인상 공동캠페인	
15	16	17	18	19	20	21
			최임위 전원회의	최저임금인상 런치문화제		
22	23	24	25	26	27	28
	최저임금인상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최저임금 페스티벌	최임위 전원회의	장그래 문화제	최저임금 1만원 전국노동자대회	
29	30	1	2	3	4	5